

C. H. 스펠젼의 설교를 평가함 (삼하6 : 20-22)

신 득 일
(Th. M., 조직신학전공)

1. 들어가는 말

남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분위기에서는 어색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진단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설교자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설교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설교는 C. H. 스펠젼의 설교¹⁾다. 현대 설교자들은 그를 일컬어 “설교자의 황태자”요 “강해설교의 대가”라고 하지만 그의 설교도 완벽하지 못함은 사실이다. 그의 방대한 설교집에서 역사적 본문을 취급한 설교는 흔치 않은데 그 가운데서 다루기에 좀 까다로운 사무엘 하 6장 20-22절 부분을 다룬 설교를 선택했다. 먼저 그의 설교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구속사적 설교 작성법²⁾에 근거해서 평가한 다음, 이 방법을 따라 어떻게 이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2. 스펠젼의 설교 요약

제목 :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법궤앞에서 춤추는 다윗

다윗은 생애 최대의 기쁨을 누렸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기쁨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잊어 버렸다. 그것은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백성이 함께 누리는 것이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듯 자기 남편을 조소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고한 기쁨속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대화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보

1) C.H. Spurgeon, *The Metropitan Tabernacle Pulpit*, vol. 34,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0), pp. 361-372.

2) 고재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있어서 모범의 기능”, 「고려신학보」 제14집(부산: 고신대 출판부, 1987)

다 더 분명하게 그것을 진술한다. 예수께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을 바리새인에 의해서 하셨듯이 다윗도 선택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을 미갈의 냉소에 의해서 하게 된다. 선택의 진리에는 큰 능력이 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참되이 깨닫는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신앙은 선택에 대한 확실한 표시이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분은 그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아는 결과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결과와 비슷하다.

1) 선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사상이 되게 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주께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할 때 주님은 밝은 빛 속에서 그에게 두드러질 것이며 그의 생애에 큰 힘과 주된 동기와 사상이 되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자연속에, 섭리가운데, 은혜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실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았다. 주님 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지금 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선택의 일을 하셨기에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2) 선택을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적인 의견을 정당하게 무시하게 된다.

다윗은 여호와께 경배할 때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미갈의 생각과 같이 그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는 사울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사람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독스럽게도 대중의 소리(Vox Populi)가 하나님의 음성(Vox Dei)이라고 할 때 이를 거룩하게 무시한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들이 문화와 학문이 부족해서 그 낡은 교리를 반복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사색보다 더 심오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내가 불쌍히 여길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는 교리를 안다면 주님이 영혼의 상좌에 계시고 인간은 더 낫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택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낮아지게 된다.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라고 했다. 그는 점점 더 여호와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한다. 미갈이 어떻게 판단하든 자기 생각보다는 그 행동이 천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누가 당신을 비난할 때 화내지 말라. 이는 그가 당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신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잘못 비난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가 자신의 입장은 바꿀 것이다. 우리가 경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했다. 보잘것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다. 우리도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그 은혜에 깊은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왕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그 분이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선택을 인식함으로써 거룩한 형제애의 감정을 품게 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평범한 레위인으로 행동한다. 그는 백성사이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거룩한 춤을 추며 그들을 인도한다. 그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지 않았다. 은혜의 교리가 얼마나 민주적이며 또한 귀족적인가! 택함 받은 자는 모두가 왕이고 우리가 그들 중의 가난한 자들과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왕들과 함께 있는 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소자도 무시하지 않는다.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같은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같은 피로 구속받고, 동일한 성령으로 부름받는다.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5)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자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다윗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 개인적인 예배는 ① 즐거워야 한다. ② 위대한 회생과 관련되어야 한다. ③ 신중해야 한다. ④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체적이어야 한다. ⑥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장막을 지을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다. 택함받은 자는 그 가정을 위해 그 집에 하나님을 모실 것이다. 가정에서 매일의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자봉없는 집이다.

6)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식은 거룩한 열광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적 기쁨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증가시

키셨다. 나는 개인적으로 영원한, 불변의, 사랑의 교리속에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실을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교리가 나의 생명이기에 나는 이 은혜의 교리를 저버릴 수 없다. 내가 그 교리를 붙든다기 보다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위대한 은혜의 교리의 다섯 손가락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 나는 죽을지라도 이 불멸의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 마치 물약과 계수나무가 향기를 발하듯이 영원한 선택의 교리는 기쁨을 발한다. 다윗은 내적 평화가 감격으로 들끓었고 그 벅찬 기쁨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는 주위에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말했다. “이방중에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중에 그의 기이함을 전파하라.”고 했다. 이는 다윗의 선교적 정신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것을 아는 모든 선교사는 불가항력적인 선교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갑추어진 활력이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감격적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기도해 마지 않는다.

3. 평 가

이 설교의 형식은 조직화된 강해설교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전체 사건 중의 몇가지 특징들을 대지도 삼고 그 사건을 설명해 가면서 여러가지 짧은 적용을 시켜나가는 설교 스타일 말이다. 내용적으로는 아주 풍부하고 높은 수준의 사상과 언어를 구사하면서 청중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교리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 전개하고 있다. 교리상으로도 설교 자체는 별로 나무랄 데 없는 무난한 설교이다. 이 설교를 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교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가끔 개혁주의적 표현(믿음은 선택에 대한 확실한 표시이다.)을 사용하기도 하고 청교도적 신앙의 표현(내적 확신 강조)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여러 부분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타나서 경이감을 느끼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설교 내용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편의 설교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청중들이 잘 소화를 해낼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설교자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설교자들의 가장 큰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본문과 설교와의 관계이다. 즉, 본문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이다.

1) 본문선택

이 단계는 역사적 본문 설교의 첫 단계이고 본문선택 자체가 유일한 적용

이다. 우리는 역사적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할 때 너무 짧게 본문을 잡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 한 귀절, 한 문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한 단위를 본문으로 잡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다.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 자르고, 붙여서는 안된다. 이 설교에서 나타난 첫번째 실수는 본문 선택의 실수라고 본다. 우리는 20~22절에서 아무 결론도 얻을 수 없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아 적어도 12절부터 시작해야 옳을 것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23절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주 제

구속사적 설교에서 주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는 설교가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 청중들이 설교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설교자가 초기일관 하나의 주된 사상에 집착하도록 하며 좋은 설교를 구상할 수 있게 한다. 이 주제의 내용은 본문이 주된 사상의 요약이어야 하고 그 형태는 공정적인 선언이나 주장은 나타내는 명제가 되어야지 하나의 제목(topic)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스펠전의 설교는 제목은 있지만 주제는 없다. 그래서 설교의 분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유추해서 필요한 해석과 적용을 덧붙일 수도 있다. 주제가 있다면 여섯개의 주제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3) 역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

역사적 인물은 한 구속사의 부분이고 우리 역시 이 한 구속사의 부분이다. 우리 모두 같은 구속사의 부분이기에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다. 이 연속성은 공통된 신앙 경험의 영역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불연속성을 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윗의 사건은 구속사의 독특한 단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진성과 그때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설교는 역사적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윗의 행위를 그냥 모범으로 제시하여 거기서 교훈을 삼는 부분이 많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독특한 신분과 이스라엘 왕국 전설의 상황에 입각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우리는 다윗의 시대적 상황으로 대입시켰을 뿐이다.

4) 본문의 의도

역사적 본문의 목표는 적절한 행동의 인간적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속에서 그리스도의 점진적인 도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기 본문

의 의도를 무시하고 설교자의 의도를 따라 설교한다면 그것은 실패다. 그것은 말씀의 수종자의 위치를 이탈하는 행위다. 스펠전은 선택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는데 적어도 본문은 선택교리를 말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분명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표현은 꼭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백합받기 전에 영원한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 스펠전은 이 선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조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적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본문을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절(proof-text)로 사용하고 있다.

5) 모범적 요소

본문 자체가 인물의 행위를 모범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으로부터 본문을 고립시키지 않고, 문맥을 잘 고려한 상태에서 본문이 허용하는 모범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범적 행동이 한번 나타난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도 특수한 상황에서 모범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주제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다윗처럼 현옷을 입어야 한다든가 성도의 패션에 대해서 언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범을 취해서는 안된다.

4. 구속사적 접근

본문 : 사무엘하 6:20-23

제목 :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성도가 취할 태도

배경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상징이다. 다윗은 그 법궤를 자가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두고 싶었다.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중심에 계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 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옮기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혼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 사실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규칙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나 다윗은 오랫동안의 집이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을 보고서 새롭게 깨닫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며 즐거워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역사

적 사건이다. 참된 통치자, 영광의 왕이 입성하실 때 다윗은 기뻐 춤을 추면서 백성을 인도한다. 여호와의 궤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에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제사장의 의복인 흰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를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왕을 위시해서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 속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왔을 때(물론 가정 예배는 아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주제 : 하나님은 다윗과 미갈의 말다툼에 판정을 내리셨다.

I. 미갈의 조소

II. 다윗의 답변

III. 하나님의 판정

I

미갈의 말은 다윗의 기분을 망치는 것이고 실망시키는 것이다. 그녀의 말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갈이 다윗이 왕으로서 좀 더 존엄하고 위엄있는 태도로 백성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갈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보면 그 곁으로 드러나는 말과 그 속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은 특별히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한다(16, 20, 23). 이것은 미갈의 신분을 다윗과의 관계보다는 사울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롱하는 말투이다. 선정시대로 돌입한 이스라엘 국가에서 왕의 직분을 고려했다면 그녀는 결코 다윗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주 예리하게 그가 계집종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과장이다. 사실 다윗의 행위에서 덕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보이지 않아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이 범인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싫었다. 그녀는 백성들의 추양과 영광을 받는 영웅적인 다윗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세속적인 영광을 누려 보려고 했다. 정말 자기 아버지 사울의 태도와 같은 입장은 취했다.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 역시도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쁨을 해야리지 못했고 그 행동이 그녀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집종의 눈을 의식하는 낮은 차원의 신앙의 결과였다. 믿음없는 외관상의 신자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삶에 거침돌이 된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갈의 조소에 대한 평가는 유추한 것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그녀의 발언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맨 마지막 구절을 볼 때 결정된다.

II

다윗은 즉각 미갈의 말을 되받아서 그녀의 교만을 꺾어 놓았다.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윗은 계집종의 눈을 의식하는 미갈의 태도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사실에 그보다 더 큰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윗이 다만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분의 구속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그는 미갈이 듣기에 섭섭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말한다.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한다. 여기서 ‘버리고 택한다’는 말은 영원한 선택과 유기의 뜻이 아니다. 왕의 직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이 아닌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기 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다윗의 행위는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신17: 18-20).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국가의 형태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게 되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찬란한 다윗 왕국의 시작을 여호와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열었던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갈의 그러한 발언은 이 모든 사실을 도외시한 쳐사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결과가 되었다.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가 낫아져서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미갈이 말하는 계집종에게는 존경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사실 계집종의 믿음만큼도 갖지 못한 미갈은 천하게 볼지는 몰라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III

앞 부분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23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사람의 대화만을 볼 때에는 이것이 가장 불화로 인한 부부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누가 옳은지 분명하게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대화에 개입하셔서 냉엄한 판결을 내리셨다(고전4: 1-5). 23절의 표현 형식은 대화가 아니고 설명체이지만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앞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뒤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말이다. 무서운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울과 그 온 집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실현되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울의 피가 섞인 자손이 미갈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 마저도 완전히 배제시키셨다. 그래서 미갈과 함께 사울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끼어들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미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최대의 관심사인 구속사의 반열에서 그녀를 철저히 제외시켜 버렸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다. 미갈은 단순히 남편에게 성가시게 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보아 그녀의 말에 숨겨진 내면적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갈과 같이, 자녀를 주지 않는 별과는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경우를 모범으로 삼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수천년 전부터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큰 기쁨이요, 위로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두려움으로 숨겨야 할 것이다.